

공공사업, 대기업 건설사만 배불린다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5위권 건설사 독점 수주
정동영, 공영개발방식 촉구



구체적으로는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공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압박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사업자 선정과정 자체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 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개별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금호산업도 시공순위만 낮은 편 재벌 계열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2-I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울하 2B1은 GS건설 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 대우건설 등 서로 바꿔 가며 짝을 짓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뉴스 대책 12월 발표
방통위, 자율규제에 초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 발표한다.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 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과 서울대 팩트체크 결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피곤한 국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 상임위 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곤기운 관계자들이 업무 및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중희 “새만금 신항만 부두 규모 키워야”

국가재정사업 전환 마당
“미래지향적 투자해야”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중희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부두시설은 현재 화물의 경우 2~3만톤 규모, 크루즈 선박의 경우 8만톤급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화물부두의 규모는 2~3만톤에서 5만톤급 이상, 크루즈 부두는 8만톤에서 15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 근거로 새만금이 동북아의 물류

와 첨단산업기지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새만금은 장차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진에 물동량을 ‘동네항만’ 수준으로 낮춰 잡아서 안된다는 논리다.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 1991년 착공 이후 지금까지 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앞으로도 새만금에 20조 이상의 천문화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투자

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총 사업비 1조6156억원(2단계 공사비, 1단계 포함 경우 2조 5589억원)인 새만금항은 현재 국비 45%, 민간자본 55%로 계획돼 있다”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련, 당초 민간자본 유치 전략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직접 개발방식’으로 방향을 튼 사실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발이 크면 큰 신발을 신는 게 이치”라며 해수부와 기재부 차원의 통 큰 투자를 재차 촉구했다.

/김진성기자

페이스북 가짜뉴스 거름망, 한국은 차별

EU 모범사례 14개 중
국내서는 5개만 적용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유럽과 다른 기존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목은 3분의 1에 불과해 가짜뉴스 차단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와 광고주들이 함께 발표한 ‘거짓정보에 대한 실천강령’에 포함된 가짜뉴스 확산 방지 모범사례 중 페이스북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의 가짜뉴스 확산방지 모범사례 14개 중 페이스북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항목은 5개에 불과했다.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 가짜뉴스 확산방지 정책은 ▲가짜뉴스 삭제 대신 뉴스피드에서 표시되는 횟수

를 줄여 배포를 감소시키는 정책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정치광고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 ▲가짜계정의 제거를 포함한 정책집행 내역의 보고 ▲팩트체크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의 신뢰도에 따른 뉴스 우선 노출 프로그램 운영 등 9개 항목이다.

이 중 팩트체크 프로그램 파트너십 국가는 지난해 4곳에서 올해는 17개국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지난달 열린 ‘페이스북 뉴스피드 미디어 세션’에서 국내의 경우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에도 서울대 팩트체크연구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 허위·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홍영표 “국감 첫날, 비방·정치공세 난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정감사와 관련해 “생산적인 국감을 기대했을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하루였다”고 야당을 힐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감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한 뒤 “국감 첫날인 어제 근거 없는 비방과 막무가내 정치공세가 난무했다.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만들자는 우리 당의 호소가 있었지만 보수야당은 국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비준 동의는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라는 새 질서에 핵방을 놓으려는 공세만 이어갔다”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한국당은 남북경협에 수백조원이 든다.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경협을 추진한다고 비방만 퍼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장해제라는 말도 했다. 남북경협은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이고 남북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2014년 쌍수를 들어 통일 대박을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왜 대북 퍼주기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2018 변산 노을축제

10월 20(토)~21(일) 변산해수욕장 일원

2018 변산 노을축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가을철 부안군 대표축제입니다.

놀거리 : 가족단위 캠핑, 노을사진 찍기, 맨손 전어잡기·무로숨마 등 체험활동
볼거리 : 변산노을, 불꽃놀이, 기념공연(출연:변진섭, 김학래 등), 영화 상영(변산)
먹거리 : 특산물 전시 및 시식

